

[지진 재해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 장 12-13 절

후쿠시마(福島) 제 1 성서 침례교회 목사 사토아키라(佐藤 彰)

(자기소개)

저는 후쿠시마(福島) 제 1 성서 침례교회 목사인 사토 아키라(佐藤 彰)입니다. 저희 교회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5 킬로 권내인 세곳에 교회가 있었고 20 킬로 권내에는 해일로 인해 침수된 네 번째의 교회건물이 있었습니다. 철도는 해일로 인해 떠밀리고 도로는 웅기되었고 맨홀이 생겼으며 교회 근처의 낡은 집들은 무너졌습니다. 천년에 한번 있다는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높이는 15 미터였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는 60 년 전 제 2 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에 바로 미국에서 선교사가 건너와 그리스도교가 전해지지 않은 일본 시골마을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부인은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일본인 목사가 30 년 동안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3 명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지켜오며 전도를 거듭해 왔습니다.

약 30 년 전 제가 25 세 때 이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입)

이제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재해를 기억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북태평양 해안에 인접한 교회 수는 적으며 교인 수도 약 15 명 정도의 작은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교회나 모두들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지진과 대 쓰나미로 타격을 받아 목사직을 그만두게 되거나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무심코

“하나님 동북연안의 교회들이 이제껏 애써왔는데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일본 북쪽지방이 이렇게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지원받았던 적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은 격렬하게 이 땅에 임하셔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

베드로전서 4 장 12-13 절

성서에서 이 구절은 사도인 베드로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아닌, 당시의 박해로 인해 갑바도기아나 갈라디아 등 현재의 터키 각지로 흩어진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져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믿을 수 없는 거대지진이 일어난 3월 11 일, 그날 저는 성도님들의 거처를 알 수 없어 눈물 흘리며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0 명의 생존을 알게 되었고, 또한 30 명, 70 명, 이렇게 150 명의 소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내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성도님 중에 한 사람도 “저희들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인지요?. 어쩌서 저희들이 이런 매정한 처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전사고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짙은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고 마을도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지진 재해 직후에 와륙에 파묻혀 있었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진이 있었던 그 다음날에는 나라에서 피난명령이 발령되어 마치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7 만명이 단 하루 동안에 산으로, 북으로, 남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으며 2 만 채나 되는 집에서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후쿠시마현(福島縣)내에 9 만명, 후쿠시마현(福島縣)외에 6 만명, 합계 15 만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님들이 “해일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 차로 달리는데 해일이 뒤쫓아왔습니다” , “앰블런스에 실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만 긴급 심장수술을 받고는 겨우 살아났는데 원전폭발로 인해 그 후로도 필사적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라는 믿을 수 없는 보고를 하고는 끝말에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라고 이전의 베드로의 심경과 같이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지진 재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고 부른 것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진 재해를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하의 성경말씀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 장 1-2 절, 4 절

(지진 재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저희들은 지진 재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지요? 베드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질적인 것,
이상한 어떤것이 외부에서 내습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바닷물이 갑자기 대 쓰나미로 돌변해 밀려와서 모든 것을 파괴하리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진 재해가 있었던 그 날 저희 마을에서는 차를 몰던 모든 여성들이
울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저희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 장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이속고 오게 될 속량의 때를 바라며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라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 세계에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서 시대에 구원의 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서서 광란하는 풍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명하시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자연을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은 대자연의 주시며 전세계의 주시며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계를 설명한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 장 18~19 절, 22~23 절

다음으로 저희들이 지진재해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얻게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감사하는 마음)

저희들은 집도 돈도 고향도 교회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 모두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난장소로 쓰인 체육관 마룻바닥에 골판지를 깔고 자는 것 보다 이불 속에서 잘 수 있는 고마움, 매일 찬 빵의 배급만이 아니고 따뜻한 스프를 마실 수 있다는 행복감, 그리고 닳새만에 샤워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던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돌연히 아무것도 몸에 지닌 것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 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니 그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약 60 명은 일본 각지를 집단 이동하게 되었고 1 년간 도쿄에 있는 독일인 선교사가 책임자로 있는 그리스도교 캠프장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새나 들판에 화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저희들을 부양해 주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란다는 불평을 멈추고 행복의 허들(hurdle)을 최대한 낮추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 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인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 장 25~26 절

(하나님의 은혜 2:인간의 원점)

저희들의 고향은 현재까지도 출입금지 구역으로 되어있어 마을이 거의 고스트 타운(ghost town)같이 보입니다. 지진 재해후 한 달이 지나서 통행 허가서를 신청해 방사능을 방호하는 굉장한 옷을 입고 약 2 시간 동안 귀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야생화한 개들은 차가 와도 누운채로 길을 비키려 하지 않습니다. 소는 방목 상태로 오래간만에 본 우리 인간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가신 동물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때 저는 이사야 11 장에 쓰여있는 사자나 어린 양이나 젓먹는 아이나 독사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왕의 부친 이새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인류의 왕 구세주 예수의 등장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적혀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였고, 또한 장남인 카인은 남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죽였다는 것과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웬지모르게 그 광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바벨탑을 쌓아올려야 만족할 수 있겠는지요? 전세계가 마른 침을 삼키며 응시하고 있는 고향 후쿠시마는 무언으로 현대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퇴장 명령을 받아 머리를 식히고나서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라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3: 현대의 바이블 랜드)

설마 선진국인 현대 일본에서 가솔린도 식량도 없이 차 15 대를 늘어 놓고

갓난아기에서 아흔 두살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나이반도를 거의 일주할 수 있는 700 킬로에 달하는 도피행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중적설 1 미터가 쌓인 북쪽지방의 눈보라 고개도 넘었으며 통조림만으로 지탱하는 집단생활도 했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사유물도 없었습니다. 어쩐지 사도행전 8 장에 기록된 박해의 폭풍 속을 헤쳐나가는 초대교회 같기도 하고 이동식교회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 명에 달하는 대가족의 집단이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바이블 클래스를 하는 피난 도중에 9 명이 세례를 받아 웬지 이상한 이동식 교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논스톱의 24 시간 서바이벌 교회인지, 혹은 1 년 365 일의 교회가 시작된 것인지요?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8 장에 기록된 초대 교회도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흩어져서 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애굽 탈출도 그 후 40 년에 걸친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시대에는 70 년 가까이 유다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망향의 마음을 품고 시온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그리며 상상하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교회가 폐쇄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랑길을 강요당하면서 원래 이 인생은 지상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흩어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렘난트-Remnant(남겨진 사람들)의

체험인지요? 시편의 많은 슬픈 노래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망향을 그리며 울면서 쓴 것이 틀림 없다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철학이 아닌
인생 바로 그것입니다.

지진 재해 로드에서 발을 디디고 보니 어쩐지 성서의 세계가 가깝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4: 신앙 고백)

1년간의 도피행 중에 성도님 네 분이 돌아가셨고 아홉 분께 각각 세례식을 했습니다.

해일에 떠밀려 만 50 세로 여 성도님이 하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만 기묘하게도 그
주에 그 분과 같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지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인생의 비상사태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은 6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여름에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름까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자기자신이
아직 살아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일찌감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원자력 발전소로 일하러 들어갈 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공포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눈물의 기도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수반하는 삶의 길목에서 신앙고백의 첫울음소리나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려는 신임에 가까운 기도도 목격했습니다.

이 지진 재해 로드는 결과주의에 물든 현대인에게 인생여로에서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너져도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혼자서 안
된다면 다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 편 71 절

(하나님의 은혜 5: 교회의 기묘한 섭리)

머리글에서 읽은 베드로전서의 편지는 불같은 시련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지진 재해로 당초
저희 교회를 다니던 성도님들이 북쪽 홋카이도에서 남쪽으로는 오키나와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는 도산했고 학교나 병원도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지역이 사라짐과 동시에 교회도 사라졌다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진과 해일에 이어서 폭발한
원전사고로 피난장소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남은 명을 피난장소에서 구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해보니 60 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솔린도 없고, 가게 문도 닫혀있는 음식물도 갈아입을 옷도 침식할 장소도 없는 집단의 이상한 도피행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사라진 교회였지만 그래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피난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장 죽을 고비가 있더라도 잘 넘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일본교회는 언뜻보기에는 작아서 지진 재해 전에는 불면 금방 날아가버릴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진 재해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기 있는 부활의 생명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 장 22-23 절

이와같이 일본은 교회도 작고 크리스천도 적은 나라입니다만 이 지진 재해를 통해서 이 땅의 소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전국각지에서 일어나 교파를

초월한 스크럼(scrum)을 구성해서 지진 재해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현지에서의 평판도 좋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남을 사랑으로 대접하는(hospitality)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드나들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리스도교인 캠프장까지 흘러오게 된 이곳에도 많은 논 크리스천인 지역 분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 재해는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을 이어준 것인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교파의 벽이 한 순간에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침례교나 성공회 할것 없이 서로 함께 스크럼(scrum)을 구성해서 지진 재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너머에서 온 지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보내준 통조림을 따서 먹고 있었습시다만 드디어 인터넷상의 교회 홈페이지인 f1church.com 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 액세스가 20 만건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쓴 지진 재해 일기는 6 개국어로 번역되어 국내외에서 많은 취재팀이 왔습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로도 읽을 수 있으니 f1church.com 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나라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기묘한 인터넷 방주를 타고는 바다 너머에 있는 세계 사람들과 연결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을 걸어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6:사명)

지진 재해 당초에 저는 어째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인가? 교회 역사도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는 유감스러움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옆 가까운 곳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진 재해 직후에 일본인이 참을성이 많다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진 재해를 견디어내어 드디어 부활의 교회로서 선택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65년 전에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처가 고난을 겪으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부인은 일본의 흙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저희들의 교회명인 ‘후쿠시마(福島) 제 1,,,교회’ 와 거의 흡사한 이름의 ‘후쿠시마(福島) 제 1 원자력 발전소’ 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링크(Link)는 과연 우연일까요?

제 아내는 지진 재해 직후에 식사를 해도 맛을 모르게 되었고 경치를 바라보는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30년 쯤부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버스를 타고서 여행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꿈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그 때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데자부(déjà-vu)’ 였던 것이지요. ‘이제 이 정도의 시련을 만나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잠재의식 속에 심어두신 것이지요?

저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에 새겨져 있는 지진 재해 로드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으로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는 마음을 다지고는 원자력 발전소가 최대의 수소폭발을 시작한 2011년 3월 15일 오전 0시에 지원 물자를 싣고 차의 엔진을 걸었습니다. 철야 운전으로 갈라진 지면과 함몰한 도로를 피해가며 곧장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최악에 경우에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에 후쿠시마현 경계구역으로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둘째 딸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아버지 원전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해서 후쿠시마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모두들 격려해주세요. 아버지가 그 교회에 목사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때를 위해서 3 월 11 일 지진 재해 이 날에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이 후로는 마치 롤러 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심장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나라와 후쿠시마현과 상의하며 피난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새교회의 건설, 또한 성도님들이 주거할 집을 찾아다니거나 취직자리 등을 알아보며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예전에 구약 성서에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일어서서 마음을 다지도록 한 권면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 장 14 절

그리고 이 동안에 하나님은 마치 구약 성서의 애굽 탈출과도 같이 각양각색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으로 저희들의 여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마 10 년 분은 울고 웃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고귀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올해 5 월에 돌아갈 수 없는 고향으로부터 남쪽 60 킬로 떨어진 곳에 새의

날개형을 하고 고향을 향해 기도 드리는 부흥기념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 편 1-6 절